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

이선경¹ · 박선남¹ · 정석희²

¹ 서울여자간호대학교, ²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 본 연구는 2009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through enforcement project for educational competency of national fund in 2009.

주요어

핵심역량, 간호, 졸업생, 역량중심교육, 포커스 그룹

Key words

Professional competence, Nursing, Graduates, Competency-based education, Focus groups

Correspondence

Seok Hee Jeong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61-756, Korea
Tel: 82-63-270-3117
Fax: 82-63-270-3127
E-mail: awesomeprof@jbnu.ac.kr

투 고 일: 2012년 11월 12일
수 정 일: 2012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24일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

Lee, Sun-kyoung¹ · Park, Sun Nam¹ · Jeong, Seok Hee²

¹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²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information on issues of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from the perspective of nursing managers, and to make suggestion for improving nursing education programs. **Methods:** Ten nursing manag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in charge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ed with the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of Downe - Wamboldt's. **Results:** Six types of nursing core competency - therapeutic nursing competency,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administrative nursing competency, humanistic nursing competency, relational nursing competency, and personal nursing competency - were identified as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show important evidence for decision-making about nursing curriculum revision based on nursing core competency, both in the classroom and in nursing practice areas. These result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nursing students or new nurse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measure degree of nursing core competency in graduates of nursing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for improving nursing core competen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과 이를 근거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태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실무현장에서 졸업간호사들의 임상수행 능력이 대상자의 요구나, 병원, 보건소 및 산업장 등의 현장요구

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Byeon et al., 2003), 이로 인해 현재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대부분의 신규 간호사들은 바로 실무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채 부족한 실무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역할 습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신규간호사는 졸업 후 첫 일 년 동안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간호실무현장의 적응을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간호교육현장에서 배운 간호이론과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실무 간의 격차는 갓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Ji, 2009). 따라서 간호실무현장의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신규간호사들의 간호현장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에 간호실무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국내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나라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하며, 각 교육기관마다 간호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목표 및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토록 함에 따라(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May)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우리나라 간호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핵심역량이란 McLagan (1996)에 의하면 특정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능력을 규명하는 의사결정도구이며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을 포함하는 역량을 의미한다(as cited in Sung & Jeong,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대학 졸업 후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통적이면서 중요도가 높아 간호대학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성취해야 하는 역량을 간호핵심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 연구로는 간호역량의 틀을 제공한 연구(Lenburg, 1999), 신규 학사 졸업생들의 역량에 대한 연구(Utley-Smith, 2004),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간호역량수준을 평가한 연구(Meretoja, Isoaho, & Leino-Kilpi, 2004),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Hall, Moore, & Barnsteiner, 2008)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역량 자가 평가에 대한 연구(Hsu & Hsieh, 2009) 등이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수기 위주의 실무능력에 대한 연구(Byeon et al., 2003; Chaung, 2011; Song, 2009)와 통합적인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통합적인 간호핵심역량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간호사 (Jang, 2000; Kang, Lee, Kim, & Ahn, 2008),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의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 프리셉터나 수간호사 등(Choi & Eun, 2006; Ha & Choi, 2010; Kwon et al., 2002; Sung & Jeong, 2006; Yang & Han, 2004; Youk, 2003) 다양한 특성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어져 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 중에서 본 연구목적과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Utley-Smith (2004)는 신규 학사 졸업생의 간호핵심역량으로 건강증진역량, 관리감독역량, 대인적 의사소통역량, 직접간호역량, 컴퓨터기술역량, 담당환자분담관리능력을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전인간호제공을 위한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 대상자 건강 개선을 위한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책임인식능력, 간호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 능력, 간호실무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능력,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변화 대응능력을 간호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따라서, 신규간호사로 역할을 시작해야 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간호실무현장의 각 부서에서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실무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는 간호핵심역량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양적인 응답을 요하는 연구방법보다는 간호실무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해 집중된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Morgan, 1997)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이용하여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하는 간호핵심역량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간호교육 현장과 간호실무 현장 간의 이론과 실무 격차를 줄이고 간호대학 졸업생이 졸업 후 바로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신규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간호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실무현장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간호핵심역량은 무엇인가?’이다.

3. 용어 정의

1) 핵심역량

핵심역량이란 특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등의 통합체로서(McLagan, 1996), 간호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정 간호실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 지식, 판단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ampbell & Mackay, 2001).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간호역량으로서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해야하는 최소한의 역량을 의미한다.

2) 간호대학 졸업생

간호대학 졸업생이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여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예비간호사로서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실무현장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도출된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간호실무현장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포커스 그룹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연구는 연구주제에 대한 생생한 견해와 관점을 지닌 참여자들로 그룹을 구성하

고, 그 주제에 관한 토의를 하도록 진행하여 연구주제의 답을 얻는 연구방법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Patton, 1990)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간호실무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로, 간호대학 임상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간호대학 졸업생의 핵심역량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자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간호실무현장을 의료기관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인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핵심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임상현장지도자를 본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 대상자들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간호대학생 임상실습기관의 간호관리자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기관 및 참여자의 임상 경력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네 곳(40%), 종합병원이 네 곳(40%)으로 전체의 80%인 여덟 개 기관이 모두 전공의 수련기관인 종합병원급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두개 기관 중, 한 개(10%)는 병원 급이었고, 또 다른 한 개 기관은 보건소였다.

이들 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일곱 개 기관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세 개 기관은 경기도 일산 소재 의료기관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임상경력은 21.7년이었으며, 임상에서의 직위는 일선관리자(병동수간호사)가 한 명(10%), 중간간호관리자가 일곱 명(70%), 간호조직의 최고간호관리자(간호부장 혹은 간호과장)가 두 명(20%)으로 나타났다. 중간간호관리자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의 참여자가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 책임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D	Length of work in nursing (years)	Position	Classification	Count of sickbeds* (n)
A	21	Nursing Education Head nurse	General Hospital	675
B	21	Nursing Education Head nurse	Advanced Care Hospital	1,721
C	16	Nursing Unit Head nurse	Advanced Care Hospital	1,096
D	14	Nursing Education Head nurse	Advanced Care Hospital	460
E	17	Nursing Education Head nurse	Advanced Care Hospital	601
F	21	Sub-director of Nursing Department	Hospital	354
G	22	Nursing Education Head nurse	General Hospital	318
H	26	Director of Nursing Department	General Hospital	505
I	27	Team Manager of Nursing Department	Community Health Center	.
J	32	Team Manager of Nursing Department	General Hospital	488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ebpage (<http://www.hira.or.kr>)

혹은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수간호사였으며, 나머지 두 명은 조직의 팀장이었다.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09년 9월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간호대학 졸업생의 간호핵심역량이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제목 및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될 주요 용어인 '간호대학 졸업생' 및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용어정의의를 하였다. 그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대답해주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취 및 녹음이 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에 위해서만 사용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담이 시행되는 동안 진행자 이외에 보조진행자 1인, 보조연구원 2인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과 중요 용어, 비언어적 행동, 표정 등을 현장노트에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현장노트를 녹취록과 함께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담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1) 시작 질문: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 2) 도입 질문: 여러분께서 신입간호사를 교육함에 있어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3) 전환 질문: 요즘 신입간호사들과 예전의 신입간호사들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탁월한 능력, 부족한 능력)
- 4) 주요 질문: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핵심역량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빠진 내용이나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Downe-Wamboldt (1992)의 내용 분석 방법론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본 연구진은 질적연구에 대한 다수의 세미나와 학회에 참석하고 질적연구 방법으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1인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임상적 학문적 경험이 많은 공동연구자 두 명을 포함하여 총 세 명의 간호대학 교수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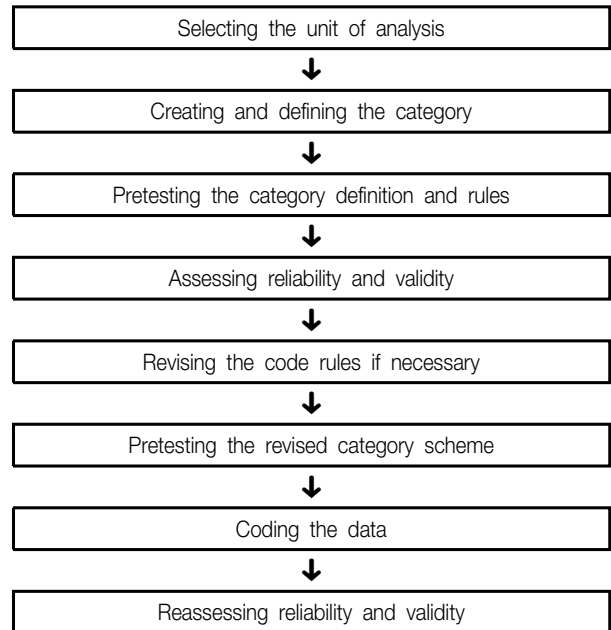


Figure 1. Procedure of content analysis (Downe-Wamboldt, 1992).

1) 분석단위 선정

연구자들은 우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기술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에 관한 문장, 단어, 구문에 밑줄을 그으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단어, 의미있는 구문을 선택하여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79개의 의미있는 구문을 선정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범주체계 생성

연구자들은 분석단위를 반복해서 읽은 후 선행연구, 이론이나 자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로 총 5가지의 범주를 개발하였다. 개인적 역량, 인격적 역량, 대인관계적 역량, 치료적 역량, 간호전문직적 역량이 범주의 틀로 결정되었다.

3) 범주 정의와 규칙에 의거한 사전검토

연구자들은 위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하면서 과연 범주가 타당한 범주인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다. 정확한 범주를 정하기 전에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간호역량의 개념이 다소 명료하지 않거나 개념이 혼용되어 분류되는 점이 발견되어 다시 새로운 범주로 6가지 범주를 구성하였다.

4)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토 및 수정보완

연구진들은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절

문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원자료로 돌아가 재검토, 범주도출과 정의, 범주의 규칙 적용 및 분류, 규칙과 범주의 추가와 수정 과정을 3~4차례 반복하면서 자료를 최종적으로 코딩하였다. 이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자들이 모여서 같은 과정을 거치며 반복하여 분석하여도 같은 분석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분석하였다.

5) 코딩규칙의 수정 및 타당도 검토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에 경험이 많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대학 교수 1인으로부터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세 명의 연구진이 자료에 매몰되어 민감하지 못했던 구문, 개념의 적절성, 개념간의 배타성, 개념 및 범주간의 수준의 불일치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근거로 수정작업을 하였다.

6) 자료분석

연구자들은 확인된 자료와 범주의 규칙에 의거하여 자료를 코딩하였고 그 결과 6개 범주 안에 13개의 하위범주, 20개의 개념, 55개의 의미있는 구문이 최종 도출되었다.

7) 자료의 타당도 검증

최종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한 맥락적 타당도와 간주관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1인에게 직접 연구결과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도출된 결과들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토의과정의 내용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로 간호실무현장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간호핵심역량은 55개의 의미있는 구문을 바탕으로 20개의 개념, 13개의 하위범주, 6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가지 범주는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 '인문학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이었으며 각각의 하위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치료적 간호역량

'치료적 간호역량'에는 4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4개 하위범주는 '핵심전공기초능력', '과학적 지식이 기초가 된 간호수행 능력', '응급상황 대처능력' '임상현장적용 능력'이었다. 하위범주에 따른 개념 및 대상자의 주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공기초능력

'핵심전공기초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기초간호과 학지식을 확실히 학습함', '간호대학 졸업생으로서 최소한의 핵심술기를 습득함'이었다. 임상지도자들은 간호사의 능력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기본간호술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기초간호과학 및 기본간호학 등의 과목에 대학 학습이 확실하여 기본이 튼튼하다면 간호대학 졸업생이 변화하는 임상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적응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 기초간호과학지식을 확실히 학습함

"저희 생각으로는 중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건 학교에서 배워 오고 최선의 경향들은 병원에 오면 그 병원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그 부분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학교 측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병태생리, 약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B)

(2) 간호대학 졸업생으로서 최소한의 핵심술기를 습득함

"기본 수기술 관련이예요. 기본 간호하는 법, 투약하는 법, 간단한 의료기구 작동하는 법 이런 것들을...(중략)... 기본 간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든지 배우고 오는 데도 불구하고 입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되고, 또 게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나가야 되고. 학교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온다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본 수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C)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거, 간호에 있어서 변하지 그런 core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나머지는 전산, 요즘에는 EMR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저희 병원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활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차피 필요하니까..."(B)

2) 과학적 지식이 기초가 된 간호수행 능력

'과학적 지식이 기초가 된 간호수행 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간호수행 시 합리적 이유를 사고함'이 있었다. 임상지도자들은 신규간호사가 많은 업무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다보면 간호업무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를 사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간호대학 졸업생은 간호의 행위마다의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찾아야 하는 필요성의 인식과

함께 간호수행의 근거를 찾으려하는 태도 및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 간호수행 시 합리적 이유를 사고함

“일단은 acting 먼저 하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acting을 (계속) 하다 보면 일을 그냥 능숙하게 빨리 하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환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rational이 조금 부족할 때가 많아요... 스테디를 통해서 많이 근거를 가지게 되고 본인이 acting하면서도 어떤 약을 주더라도 이 환자는 왜 이 약이 들어갈까, 이 환자는 왜 이 검사를 하게 될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게...”(C)

3) 응급상황 대처능력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다양한 세팅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이 있었다. 임상지도자들은 현재의 의료환경은 응급상황이 반드시 응급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병동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응급상황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한 대처능력에 대한 학습과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언급하였다.

(1) 다양한 세팅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실상 응급상황은 응급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응급실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동에 있어도 응급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일반적으로 기본 간호실습이라든가 그냥 매일 같이 일상 밥 먹듯이 흘러가는 간호에 대한 것은 거의 대체로 잘 넘어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 년에 한번 씩, 몇 개월에 한번 씩 간호사들이 대박을 터트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간호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운데 대개 보면 경력이 없는 간호사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중략)... (요즘은) team nursing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functional nursing 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J)

4) 임상현장적용 능력

‘임상현장적용 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간호지식을 실제적인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이 있었다. 임상지도자들은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간호지식을 실제 간호 임상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론적 지식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한 임상현장 속의 간호행위와 관련된 능력을 강조하였다.

(1) 간호지식을 실제적인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고 정말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머리 속에는 많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볼 때는 그런 간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그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assess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care plan은 어떻게 해왔는지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C)

2. 전문직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에서는 ‘올바른 간호역할개념 설정 능력’이라는 1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하위 범주와 개념 및 대상자의 주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간호역할개념 설정 능력

‘올바른 간호역할개념 설정 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자기사명선언을 통해 간호직에 대한 비전 설정함’, ‘학생시절에 간호직에 대한 구체적 현실감을 가짐’, ‘간호사로서 품위지킴’이 있었다. 임상지도자들은 간호대학 졸업생이 간호직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직시함으로써 간호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미래와 결부하여 간호직에서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각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품위 있는 간호사가 되길 조언하였다.

(1) 자기사명선언을 통해 간호직에 대한 비전 설정함

“대학 과정 중에서 예비간호사라면 한번쯤은 자기 사명에 대한 선언을 가지고 단기계획, 장기계획 그래서 궁극적으로 간호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 자기의 단계별 그림이 그려진 상태라면 병원에 나와서 연결해서 자기 identity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저희 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간호 사명선언서를 쓰게 하거든요...(중략)... 네 스스로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너희 프로그램 생각해서 짜서 기록으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사실은 그 훈련이 학교에서부터 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중략)...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G)

(2) 학생시절에 간호직에 대한 구체적 현실감을 가짐

“간호학생들에게 병원에 취직하기 전에 간호사의 일과 환경에 대한 그런 reality(현실감)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실감 없이 간호사가 돼서) 힘들게 고생 고생하는 것을 보면 병원

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다가 결국 나가버리게 되는...”(B)

(3) 간호사로서 품위지킴

“제가 저희 신규 간호사들 교육을 하면 간호사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생들도 오면 저희가(간호부에서) 늘 옆에서... 항상 외모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사소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미래 직업에 대한 외모나 태도에 대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쌓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E)

3. 행정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에서는 1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1개 하위범주로는 ‘간호관리적 능력’이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하위 범주와 개념 및 대상자의 주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관리적 능력

‘간호관리적 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사업에 대해 총괄적 행정기획을 할 수 있음’, ‘수행한 일에 대해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할 수 있음’이 있었다. 임상 지도자들은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간호사의 능력 중 하나가 행정적 관리능력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능력이 라고 제시하면서 관련 교과목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 간호사의 경우에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업무가 많고 병원 현장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자교육 및 병원경영 등에 참여하는 등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인하여 간호직을 대표하는 발표 능력 등이 새롭게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1) 사업에 대해 총괄적 행정기획을 할 수 있음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간호대학 커리큘럼 중에 간호경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이라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H)

“보건소에서 하는 간호사들의 행정은 사업 위주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중간 평가, 마무리 평가까지 하게 되면 하나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요...(중략)...그 중에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보건행정에 기획 파트예요. 그 부분은 간호 학생들이 나와도 거기까지 깊숙이 저희가 지도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에만 많이 치중을 하고...”(I)

“커다란 프로젝트 아니라도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많이 훈련되어야 되지

않나...”(I)

(2) 수행한 일에 대해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할 수 있음

“간호사들 특징이 뭐냐면 몸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몸으로 일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를 발표할 때는 타 직종들이 간호사가 열심히 한 일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F)

“포장의 기술이라고...(중략)...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몸은 열심히 일하는데 포장을 못하는, 자기가 했던 일을 어떻게 남한테 보여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A)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보내주셔야(줄업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I)

“현장에서 간호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학구적인 데이터를 찾아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B)

4. 인문학적 간호역량

‘인문학적 간호역량’에는 1개의 하위범주와 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1개 하위범주는 ‘인문학적 교양을 통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였다. 하위범주에 따른 개념 및 대상자의 주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적 교양을 통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한 핵심역량의 하위범주는 ‘인문학적 교양을 통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이었고 그 안에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을 쌓음’, ‘다양한 인간심리에 대해 이해함’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임상지도자들은 간호사가 인간을 다루는 직업임을 강조하며 교양교과목 학습 및 폭넓은 독서 등을 통하여 사회학, 인문학 등의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을 쌓음으로써 환자, 보호자, 동료 등 다양한 인간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을 쌓음

“학생들이 성장과정 중에 환경적으로 (자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조금 더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의 베이스를 충분히 적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년제 학생들은 일 년이라는 교양 기간이 4년제 학생들보다는 짧으니 그 부분(인문학적 교양) 좀 더 강화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

(인문학적 교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E)

(2) 다양한 인간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환자, 보호자, 전체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지 않을까(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환자 심리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보호자, 동료 의료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여..폭넓은 독서를 통해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C)

5. 관계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에는 2개의 하위범주와 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2개 하위범주는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이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하위 범주에 따른 개념 및 대상자의 주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환자, 동료 및 타 의료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짐’이 있었다. 임상현장지도자들은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력과 유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환자와 보호자, 동료, 선후배와의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면 간호사직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간호대학 졸업생은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 환자, 동료 및 타 의료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짐

“실제로 병원에 와서 비단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라든지 아니면 동료 간호사라든지 타 부서라든지 적극적, 소극적인 것을 떠나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잘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고...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과 같이 일 하는 게 너무 힘들다....이렇게 complaint이 들어 와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되는 경우까지 저는 봤습니다...성적이 우수해서 뽑았는데 의사랑 관계가 너무 좋지 않고... 의사가 그 간호사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중략)...직장인으로서의 간호 역량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중에 의사소통론 같은 게 들어가 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C)

“대인관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A)

2) 팀워크

‘팀워크’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은 ‘토론 및 그룹워크를 통해 협동하여 일을 수행함’이 있었다. 임상현장 지도자들은 간호직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며 팀 간호 제공 및 삼교대근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간호대학 졸업생의 핵심역량으로 함께 그룹으로 성과를 내는 작업을 통해 협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관계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토론 및 그룹워크를 통해 협동하여 일을 수행함

“(간호사들은) 국가고시를 봐야 되니까 암기 위주의 수업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토론식, 그리고 ‘나 혼자해서는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중략)...조직의 팀워크를 강조하고 싶어요. 간호사 개인으로 봤을 때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직하면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해요.”(H)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수많은 이론이 머릿속에 있더라도....조직에서 같이(함께) 일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C)

6. 인성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에서는 4개의 하위범주와 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4개 하위범주로는 ‘끈기와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 ‘예의와 예절’이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하위 범주와 개념 및 대상자의 주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끈기와 지구력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한 핵심역량의 하위범주는 ‘끈기와 지구력’이었고 그 안에 ‘여성이지만 끈기, 강인성, 지구력을 가짐’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임상현장 지도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인내심과 끈기 없는 것이 간호직에 대한 적응 및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대학생활에서부터 끈기를 배우고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의 경우처럼 여학생에게도 지구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끈기와 지구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1) 여성이지만 끈기, 강인성, 지구력을 가짐

“(요즘 신규간호사들은) 끈기, 그게 정말 부족하더라고요...(중략)...학생 때도 공부를 탄월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력을 가지고 이겨보라고 하는 것을 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H)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아예 임상에 오지 않고 자기에 맞는 다른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B)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오지만 여학생들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요즘 세대가 N세대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E)

2) 건강한 자아개념

‘건강한 자아개념’의 하위범주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함’과 ‘사회경제적 안정감을 통해 잠재력이 발휘됨’이 있었다. 임상현장지도자들은 무기력하고 낮은 자존감과 사회경제적 불안정함이 간호직을 견디게 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가질 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현장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1)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함

“대부분의 사직하는 간호사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거기서 recovery 하지 못하고 보통 사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중략)...본인이 성취감도 없고 자기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한번 만에 끝나는 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지적받는 게 개인(성격)에 따라서는 모멸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 신규 간호사들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E)

(2) 사회경제적 안정감을 통해 잠재력이 발휘됨

“개인의 인성이나 그 사람이 깔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베이스 라인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본인이 가진 잠재력을 병원 안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 가는 것 같습니다...(중략)...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체로서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인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E)

3)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한 핵심역량의 하위범주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이었고 그에 속한 개념으로는 ‘지속적으로 자기성장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갖추’이 도출되었다. 임상현장지도자들은 간호직이 전문직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자기성장 할 수 있는 자기동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의료지식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지는 것이 인성적으로 중

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1) 지속적으로 자기성장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 년만 내가 일하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질을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A)

“병원 환경에서 또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연차를 쌓아가면서 점점 더 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체질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E)

(2)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갖추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냥 주입식으로 스케줄 따라서 끌려 다니면서 소극적으로 지내도 사실 졸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그러한 행태로 해야지 오히려 패스가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B)

4) 예의와 예절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한 핵심역량의 하위범주는 ‘예의와 예절’이었고 그에 속한 개념으로는 ‘기본적 예의를 갖추’이 도출되었다. 임상현장지도자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간호사라면 기본적으로 환자나 동료, 상사 등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1) 기본적 예의를 갖추

“요즘 N세대, 신세대해서 굉장히 당돌하고 자신감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 이전에 먼저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서 기본적 예의를 갖춘 간호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F)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간호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핵심역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고 있는 의료기관의 간호부장 등 최고 간호 관리자들을 포함한 간호실무현장의 간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것으로 실무현장의 요구에 근거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간호지도자들이 언급하는 간호졸업생들의 핵심역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서 제시하는 성과기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도출과정 중, 요구 사정 시 권고되는 졸업생들이 취업할 현장 및 실무전문가들로부터의 교육적 요구 사정을 실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우리나라 간호교육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간호핵심역량과 관련하여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1)은 대한간호협회실습교육 특별위원회의 가안으로 '핵심간호능력에 관한 고찰'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간호사 핵심역량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된 간호사 핵심역량은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응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력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 리더십능력, 연구능력, 글로벌 보건의로 정책변화 대응 능력이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우리나라의 간호사 핵심역량 관련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Jang (2000)의 연구는 문헌분석 및 임상간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간호사들의 경력과 연계한 임상등급에 따른 간호역량 목록을 제시하였다. 즉, 임상간호사들의 간호역량을 과학적 간호역량, 윤리적 간호역량, 인격적 간호역량, 심미적 간호역량의 4가지 간호역량군으로 나눈 후, 이들 각각의 간호역량군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간호역량으로 전문성 개발력, 자원관리, 병동업무처리력, 윤리적 가치지향성, 협력, 자신감, 자기조절, 유연성, 환자이해, 환자지향성, 임상적 판단과 대처, 영향력, 타인육성의 총 13가지 간호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간호핵심역량들은 정규 간호교육 내에서 교육되어지고 간호대학 졸업 전에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견지에서 Park (2011)은 우리나라 간호교육기관 65개교의 교육목표 분석을 통하여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육성해야하는 능력으로 기본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관계능력, 전문능력, 정보활용능력, 글로벌역량, 봉사정신의 8가지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간호핵심역량 관련 연구들은 Jang (2000)의 연구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의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측면의 주요 핵심역량을 제시하거나 간호교육기관의 교육목표 분석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 견지에서의 핵심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간호대학 학생들이 간호대학 졸업 후 진출 할 간호실무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간호핵심역량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임상간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간호역량 목록을 제시한 Jang (2000)의 연구는 연구가 실시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의 변화된 간호현장의 모습

리를 발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역량에 대한 국외 연구들 중 Utley-Smith (2004)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병원, 너싱홈, 방문간호기관 등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의 간호관리자 363명을 대상으로 신규 학사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간호역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건강증진역량(health promotion competence), 관리감독역량(supervision competence), 대인적 의사소통역량(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직접간호역량(directive care competence), 컴퓨터 기술역량(computer technology competence), 담당환자분담관리능력(careload management competence)의 여섯 개 요인의 간호역량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변화된 간호실무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을 제시하고자 간호실무현장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핵심역량으로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 '인문학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의 여섯 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의 주요 선행 연구결과들과 각각의 단어 및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고찰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역량들 중,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의 세 가지 역량은 위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없었다. 10여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실시되었으며, 문헌고찰 및 교과과정 분석, 면접 등의 연구 접근방법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역량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이들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간호의 고유한 핵심역량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에 본 연구결과 도출된 여섯 가지 간호핵심역량들 중, '행정적 간호역량'은 기존 국내 연구들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새롭게 대두된 범주로서 '행정적 간호역량'은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간호핵심역량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들 중, '인문학적 역량' 및 '인성적 역량'은 Jang (2000) 및 Park (2011)의 연구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의 일곱 개 간호핵심역량의 내용에서는 인문학적 역량 및 인성적 역량의 범주에 포함 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논의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된 '행정적 간호역량' 및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으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최근 간호핵심역량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인문학적 간호역량' 및 '인성적 간호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수요자 중심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제시된 간호핵심역량들 중의 하나인 '행정적 간호역량'이란 '간호관리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 안에는 '사업에 대해 총괄적 행정계획을 할 수 있음'과 '수행한 일에 대해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할 수 있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관리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행정적 능력이 필요함을 많이 강조하였는데, 이는 간호사에게 대상자 돌봄 중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실무현장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핵심실무역량들 중의 하나로 관리기술(management skills)을 제시한 Lenburg (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QI, 감염관리, 보건관리, 서비스 코디네이터, 전문 간호사 등으로 간호사에 대한 역할기대가 다양화 되고, 또한 환자간호 부서를 포함한 이들 부서들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기존의 직접적 간호실무제공 중심에서 최근에는 교육, 연구, 질 향상 활동,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간호계에 대한 요구 변화 및 시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교과목에 '간호경영'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간호사들에게 취약한 보건행정 기획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에 따라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기회가 많아지면서 간호사의 중요한 능력으로 문서작성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발표능력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졸업 전에 컴퓨터 활용능력, Microsoft Office Specialist (MOS)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이들 자격증 취득을 졸업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적 간호역량'이 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적 간호역량'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간호실무현장의 최첨단 정보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간호정보역량(Chung, 2012; Kim, 2009)' 및 외국의 간호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학사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간호역량에 대해 조사한 Utley-Smith (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컴퓨터기술역량(computer technology competence)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하거나 기존 교과목에서 기획,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는 등 간호대학 학생들의 '행정적 간호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간호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문학적 간호역량'이란

'인문학적 교양을 통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 안에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을 쌓음'과 '다양한 인간 심리에 대해 이해함'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간호의 주요 메타파라다임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간호학의 주요 철학적 배경인 인본주의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인문학적 교양을 간호핵심역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핵심실무역량으로 지식통합기술(knowledge integration skills)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간호, 보건 및 관련 학문들'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liberal arts)'을 제시하고 있는 Lenburg (199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사료되며,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간호학 졸업학점 축소 움직임과 관련하여 간호학 전공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되거나 또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간호교육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 '교양 교과목'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양강좌 학점취득을 통하여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다양한 인간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문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할 당위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직접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 등'의 간호학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교양교과목 중에서도 간호대학 필수교양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간호대학 학생들이 필요한 인문사회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대학의 학생들 중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전공한 학생들의 비율이 문과를 전공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문학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살펴볼 때,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May)이 최근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필수지표로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의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학점' 관련 평가 기준에서 간호학과와 전공기초 영역의 18~26 학점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최소 8학점 이상 이수토록 기준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며,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적정 학점 비율 등에 대한 간호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문학적 간호역량은 전공기초에서의 인문사회과학 교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을 통하여서도 함양될 수 있는데 국내 간호대학과 간호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Kim, Joung과 Hwang (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전문대학이 4년제 간호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공교육과정 학점의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교양교육과정 학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제시된 바 추후 4년제로의 학사과정 운영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문학적 간호역량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연구대상자가 제

시한 것과 같이 간호대학 학생들이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학 내 간호학 전공자들이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며, 현재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벌레 기르기 프로그램' 및 '독서토론대회' 등의 다양한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인문학적 교양이 풍부한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적 간호역량'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끈기와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 예의와 예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성적 간호역량'은 위에서 제시한 '인문학적 간호역량'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역량 범주 간의 상호배타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간호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이들 간호역량 각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대학의 역량기반 또는 성과기반 교육과정개발에 반영하는 등 추후 간호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간의 품성에 해당되는 '인성적 간호역량'과 인문학적 교양,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적 간호역량'을 상호관련성이 있는 각각의 독립적인 범주의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에 있어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의 본질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호역량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인성적 역량을 도출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고등교육기간에서 실시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인성을 새롭게 형성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인성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는 없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중재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나 내재된 긍정적 인성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성적 간호역량 중, 끈기와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은 전문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힘든 간호현장에서 성실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일부 대학들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병대 캠프 등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끈기와 지구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성장능력은 간호사로서 전문화 되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전설정 및 목표관리(MBO)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의와 예절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표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간호 팀 및 다학제적 팀의 팀원들과 함께 팀을 이뤄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있어 동료 및 팀원들에게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임이 분명하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효과적인 팀워크 및 인간관계 형성의 밑거름이 되어 '관계적 역량'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의 팀 성과 및 조직성과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결과 제시된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핵심역량 여섯 가지 중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의 세 가지 범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다른 간호핵심역량 관련 연구결과들과 내용적 측면에서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필수적인 간호핵심역량을 잘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핵심역량으로서 최근 우리나라 간호계에 대한 요구 변화 및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행정적 간호역량'이 도출됐을 뿐만 아니라, 자칫 소홀할 수 있었던 '인문학적 간호역량' 및 '인성적 간호역량'이 부각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학계에서는 본 연구결과 제시된 역량들이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간호핵심역량임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시된 이들 핵심역량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들 핵심역량을 성과중심교육체제에 반영하는 등 미래의 예비 간호사들이 정규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이들 핵심역량을 성공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을 간구해야 하겠다.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핵심역량으로 '치료적 간호역량', '전문직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 '인문학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을 제시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간호핵심역량 도출이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들 간호핵심역량들은 간호교육기관 및 실무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간호교육기관의 핵심역량 설정에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핵심역량에 근거한 간호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 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간호핵심역량은 역량에 근

거한 구체적인 간호교육성과 설정 및 성과지표 개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yeon, Y. S., Lim, N. Y., Kang, K. S., Sung, M. S., Won, J. S., Ko, I. S., et al.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y for new graduate nurs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0, 47-56.
- Campbell, B., & Mackay, G. (2001). Continuing competence: An Ontario nursing regulatory program that supports nurses and employer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5(2), 22-30.
- Chang, S. K.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18, 71-78.
- Choi, J. S., & Eun, Y. (2006). A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clinical ladder of operating room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60-69.
- Chung, S. Y. (2012).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 313-321.
- Ha, N. S., & Choi, J. (2010).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286-294.
- Hall, L. W., Moore, S. M., & Barnsteiner, J. H. (2008) Quality and nursing: Moving from a concept to a core competency. *Urologic Nursing*, 28, 417-426.
- Hsu, L.-L., & Hsieh, S.-I. (2009). Testing of a measurement model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self-evaluation of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 2453-2463.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9.05124.x>
- Jang, K. S. (2000).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Ji, E. O. (2009). *A study on field adaptation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Y. S., Lee, S. J., Kim, I. J., & Ahn, K. H. (2008). A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e for nurses working in general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 219-228.
- Kim, M. S. (2009). Role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formatics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731-740. <http://dx.doi.org/10.4040/jkan.2009.39.5.731>
- Kim, S.-Y., Joung, S.-E., & Hwang, C.-I. (2011). A comparison on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4-year and 3-year nursing schoo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 101-109. <http://dx.doi.org/10.4040/jkan.2011.41.1.101>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1, May). *Study of core nursing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 of the nursing education core competence (focused on basic nursing skills) evaluation, Seoul, Korea.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Retrieved December 10, 2012, from <http://kabon.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 May).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guidelin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explanatory meeting of the '2012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Seoul, Korea.
- Kwon, I. G., Jung, K. H., Cho, H. S., Hwang, J. W., Kim, J. Y., & Jeon, K. O.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re competency evaluation tool for new graduate nurse's precept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 535-549.
- Lenburg, C. B. (1999). The framework, concepts and methods of competency outcomes and performance assessment (COPA) model.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4(2), Manuscript 2. Retrieved March 25, 2011, from [http://www.nursingworld.org/MainMenuCategories/ANAMarketplace/ANAPeriodicals/OJIN/T](http://www.nursingworld.org/MainMenuCategories/ANAMarketplace/ANAPeriodicals/OJIN/TableofContents/Volume41999/No2Sep1999/COPAModel.aspx)ableofContents/Volume41999/No2Sep1999/COPAModel.aspx
- McLagan, P. (1996). Great ideas revisited. *Training & Development*, 50, 60-65.
- Meretoja, R., Isoaho, H., & Leino-Kilpi, H. (2004). Nurse competency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 124-133. doi:10.1111/j.1365-2648.2004.03071.x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 J. Kim, S. E. Oh, Y. Eun, H. M. Son & M. S. Yi, Trans.). Seoul: Koonja.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Park, J. H. (2011).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74-87.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ong, Y. (2009). A correlation study on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of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 56-63.
- Sung, Y. H., & Jeong, J. H. (2006). Defining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and comparing different units based o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 76-93.
- Urley-Smith, Q. (2004). 5 competencies needed by new baccalaureate graduat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5, 166-170.

Yang, N. Y., & Han, S. S. (2004). Cognition of the preceptors on the preceptor's role stress and competency pre-post preceptorship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 262-270.

Youk, S. Y. (2003). Nursing competency and indicator development by emergency nurse's clinical lad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9, 481-494.